



전기안전공사, 취약노인 보호사업 유공 단체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노인 보호사업 유공'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한 민·관 단체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전기안전공사는 2013년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독거노인 주거복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11년 동안 전기안전공사는 노인 주거시설 3만 2933호의 전기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5만 5,298개의 노후·불량시설을 개선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출동 고층차리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12만 107회에 달하는 주거시설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본사와 전국 사업소 직원들이 취약노인 보호에 적극 참여해준 덕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 진봉면 김기흥·최승훈씨, 백미 200포 기탁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김기흥씨와 최승훈씨가 17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490만 원 상당의 백미(10kg 20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 백미 기부를 한 김기흥 씨와 11년째 백미 기부를 한 최승훈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열 진봉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김기흥 씨와 최승훈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따뜻한 진봉면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한편 기탁받은 백미는 진봉면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계층 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교회, 이웃 위한 백미 100포 백구면에 기탁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7일, 백구교회(이종식 목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0포(10kg)를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백구교회는 매년 겨울철마다 주변 이웃들을 살피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백미 기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더욱 많아지자, 이를 돕고자 정성을 모았다.

이종식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기탁된 백미는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 예정이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조합원·임업인 권익 향상에 최선 다 할것”

장수군산림조합, 하반기 산림조합 금융 업적평가 '금상' 수상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지난 16일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산림조합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산림조합금융 업적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조합금융에 대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국 평가대상 139개 조합 중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을 선발해 표창을 시상하고 있다.

장수군산림조합은 산림조합금융 규모화 목표 달성 및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생산성 등 전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수군산림조합은 한상대 조합장을 필두로 일반시공사업과 산림경영지도사업, 임산물생산자 컨설팅 등 일반사업 수행을 위한 11명의 직원과 더불어 산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9에 금융지점을 신설, 총 6명의 금융과 직원(본점 3명,지점 3명)이 배치되어 임업인과 조합원, 일반 고객들에 대한 산림경영 및 금융 상담과 애로사항,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등 산림조합의 본질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평소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의 대표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상대 조합장은 "2024년도 하반기에도 금융 업적평가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특히 업적평가에 큰 도움을 주신 최훈식 군수와 산림과 직원분들 그리고 조합을 믿고 거래한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어 노력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항상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은행, 'JB 다정다감 행복한집 제11호' 오픈

인후동 소재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공부방 조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7일 전주시 인후동 소재 다문화가정에서 'JB 다정다감 행복한집 제1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인봉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추천으로 찾아간 다문화가정은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집안 환경개선, 학령기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마련에 어려움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장판 교체 및 낙서와 변색 등으로 오염된 벽지 제거 후 집안 도배를 새롭게 했다. 또 많은 생활용품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방을 정리하고 책상과 의자, 책장, 옷장 등으로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어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 전주인봉초등학교 유영진 교장,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조인성 전주시청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권 부행장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이번 복지사각지대 다문화가정이 발굴되고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 가장 시급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아리랑하우스, 진안 안전면에 사랑의 곰탕 기부

전주시 인후동 아리랑하우스(대표 김진오)는 17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곰탕(5인분) 120개(500만원 상당)를 안전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겨울철에 이웃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자 하는 아리랑하우스의 김진오 대표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됐다.

김진오 대표는 "추운 겨울철 따뜻한 국물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안전면장은 "맛있는 곰탕을 드시며 관내 이웃들이 따뜻한 정과 함께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곰탕 기부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역 이웃에 대한 큰 사랑과 관심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범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월하건설과 업무 협약



한국범무보호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7일 월하건설(대표 박영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협력하며,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보호사업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박영동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건설 현장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월하건설의 따뜻한 동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 용지면, 12월 주민자치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주민자치위원회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12월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정소식 전달에 이어 2025년 용지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촉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